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⑬ 부처님 10대 제자 MBTI는?

‘성격유형’ 얽매이기보다 ‘선한 의지’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감정수업’ 현장.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가까워지자 서로의 MBTI를 궁금해했다. 고학년들은 어느 정도 MBTI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신과 잘 맞는 성격유형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에 대해 숨기기도 하면서 얼무적거리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냥 신기하고 궁금했던 저학년들은 저돌적으로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 핸드폰을 열어놓고서 이리저리 대답을 하다가 마침내 나온 결과에 당황스러워했다.

“내가 그렇다고? 나는 그런 성격 아니야!”

아이들은 인정하기 싫은 듯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여자아이 한 명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고학년들이 놀리듯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 것도 한 몫 했고, 주변 친구들이 킥킥거리는 실소에 더 비참해하기도 했다. “내 성격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왜 결과가 이렇냐?”며 나에게 다가와 묻는 아이들의 진지한 얼굴에 잠시 웃음이 나왔다.

“재미로 인터넷에서 찾아본 MBTI가 얼마나 정확하겠니?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기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 변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금세 밝아진 표정으로 “야! 아니래! 아니라고!” 소리치는 아이들이다.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는 몇 년 전부터 다시 유행하는 성격유형검사다.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카를 융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발전시킨 검사이며, 외향성-내향성,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으로 차원을 나눠 성격을 분류한다. 개인이 선호하는 경향과 행동을 모아 성격을 나누고 구분하는 심리검사로 유행하고 있다.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대인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기의 요인일 것이다.

하지만 MBTI는 사실 심리치료에서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과학적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못하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타당성과 신뢰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MBTI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아이들에게도 설명했지만 성격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MBTI의 결과에 널뛰듯 요동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단지 자신이 현재 어떻게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지 참고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장점만이 가득한 성격도, 단점만 가득한 성격도 없다. 성격은 다르지만 개개인이 가진 선한 의지가 모여 공동체의 힘을 만들듯 서로가 함께 돕는 지지대가 되는 것. 그뿐이다.

심리치료서 MBTI, 과학적 근거 미미

성격, 개인 경험 · 환경 따라 변화 가능

모든 이의 장 · 단점 함께 어울려가야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다양한 성격에도 불협화음 없이 깨달음을 얻고 서로 탁마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자들의 MBTI를 추측하고 주관적으로 풀어보자면 같은 유형은 거의 없을 듯하다.

상수제자로 불린 목건련은 아마도 ESFP(즉흥적인 연예인)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흥적인 면모, 감정을 열렬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천신 제석을 혼쭐내는 장면은 허세도 엿보일 정도다. 천신 제석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천상으로 돌아갈 때 목건련은 제석의 마음공부 경지를 알아보려 뒤를 몰래 쫓기도 하고, 쾌락을 쫓는 제석을 혼내주려 신통을 사용해 놀래게도 한다. 반성하는 천신의 모습에 우쭐해져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단순하면서 순진성도 보인다.

지혜제일로 불리는 사리불의 MBTI는 ISTJ(집행력 있는 조직가)로 추측된다. 사리불은 교단의 실무를 담당하며 조직하는 경영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성실함의 대표주자다.

또 마하가섭이 만일 MBTI 검사를 한다면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을 따르는 INTJ(용의주도한 전략가)로 나왔을 것 같다. INTJ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목표를 달성했을 때 큰 행복감을 느낀다. 마하가섭은 중인도의 최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강요에 따라 결혼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출가를 꿈꾸며 성생활 없이 12년을 보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출가해 ‘염화미소 이심전심’의 주인공이 된다.

천안제일로 불리는 아나율은 어떤 MBTI일까? 사실 아나율의 출가 동기를 보면 그는 우유부단의 극치다. 아나율은 석가족 출신으로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었다.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숫도다나)의 막내 동생 감로반왕(아미또다나)의 둘째 아들이었다. 석가족의 왕위를 이어야 할 형제들이 모두 출가하자 막내 중의 막내인 아나율은 책임을 회피할 도구로 출가했다. 이런 면을 보면 ENFJ일지도. 하지만 부처님께 꾸중을 듣고 눈을 감지 않고 수행하는 강한 면모도 보였다.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이 있고 단점과 장점이 있다. 부처님은 성격을 고치기보다는 깨달음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갖도록 했다. 출가 이후 각자 자신이 가진 성격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었다. 화엄의 또 다른 이름이 잡화다. 모든 대중이 스스로 빛나는 꽃이 되어 부처님을 장엄하는 꽃, 잡화장엄(雜華莊嚴). 우리 모두는 소중하게 빛나는 꽃송이들이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⑦ 걷기의 영성화 (2)

‘나’를 돌아보는 명상과 함께 자연을 걷다

‘건강, 여행, 레저, 의미, 영성의 회복, 경제성’

이처럼 걷기는 다양한 주제를 소화하면서 한국인의 놀이 문화를 바꾸어 가고 있다. 혼자도 할 수 있고, 여럿이도 할 수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부담이 가지 않는 새로운 놀이 문화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날 때 아무 때나, 일상생활에서 입던 옷과 신발을 신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즐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도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을 걷는 길이라고 하지 않는다. 흙이 있고, 자갈이 있고, 낙엽이 있고, 숲이 있으면서 의미가 주어진 길을 걷는 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다는 것의 지금의 한국적 의미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연에의 본질적 회귀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자연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걷기라는 메가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트렌드에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 중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맨발로 걷고 있다. 그들은 자연 즐기기와 건강 챙기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다.

걷기를 즐기는 이들을 위하여 더 많고 좋은 길들이 조성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이면서,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적인 레저를 찾는 요즘 걷기처럼 알맞은 야외활동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걷기를 단순히 신체활동으로만 여기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교활동은 물론 숲을 거닐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찾는 영성회복 활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도 걷기 열풍은 그 열기를 더해갈 것이 분명하다. 이제 사람들은 슬로우 레저, 올레길 식으로 표현하면 ‘놀멍 쉬멍 즐기기’가 새로운 대세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사는 종교계에서도 무관심하지 않다. 어쩌면 걷기 열풍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종교, 그 중에서도 불교계가 될 소지가 크다.

애초부터 걷기 길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스페인의 까미노는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도 기독교 성지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숫자가 적을뿐더러 거리상 떨어져 있어 어떤 연관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사진출처=Unsplash

단순 신체활동서 나아가 사교활동

자신 돌아볼 기회 찾는 영성회복도

불교, 걷기 열풍 혜택 가장 큰 종교

‘삶과 자아성찰’ 주제로 길 개발해야

하지만 불교계는 다르다. 예를 들면 월정사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오대산 천년의 숲 옛길 따라 걷기대회는 월정사와 상원사가 가지고 있는 전설, 부처님 진신사리 그리고 천년의 숲이 어우러져 있다. 그야말로 현재의 걷기 열풍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인 종교적 이야기, 자연친화적 도로, 자아 성찰적 명상이 골고루 버무려져 있다.

이 같은 유리함은 산 속에 절이 많은 불교계로서는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이벤트의 출현이다. 현대 들어서 모든 종교의 신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계는 좀 더 많은 신도, 잠재적 신도와 능동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우선 자아 성찰적 명상은 불교의 기본 도리이다. 제주 올레길을 개척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도 자아에 대한 고민 끝에 스페인의 까미노를 걸었다.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도 역시 삶과 자아성찰이 주제이다. 종교적 이야기는 한국의 어느 산골엔들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을까.

또한 자연친화적 도로는 대부분의 절들이 산 속에 위치해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굳이 걷기용 길을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만 해도 불평거리였던 절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야말로 걷기 마니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친화적 도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저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신발을 벗자고만 하면, 걷기 명상의 더없는 근거지가 되는 것이다. 베트남의 불교승려인 틱낫한이 주장했던 걷기 명상의 관념을 한국적으로 조금만 고치면 된다.

파울로 코엘료는 까미노를 유명하게 했고, 서명숙은 제주 올레를 만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걷는 길의 길이와 아름다운 풍광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하드웨어는 이제 꽤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걷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이다. ‘왜 걷는가?’에 대한 성찰적 주제와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어울리면서 우리를 흥겹게 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길이 앞으로 한국의 까미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비바미(Viva!me) 대표〉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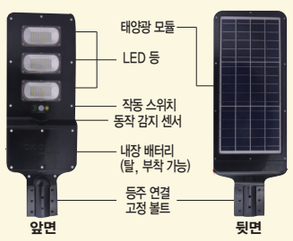
사찰경내 연등 공사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